

□ 새로운 역사관, 생활사에 대한 고찰

주변의 역사에서 중심의 역사로

정치사 위주에서 탈피 생활사 조명

자료 부족, 연구방법 미숙 극복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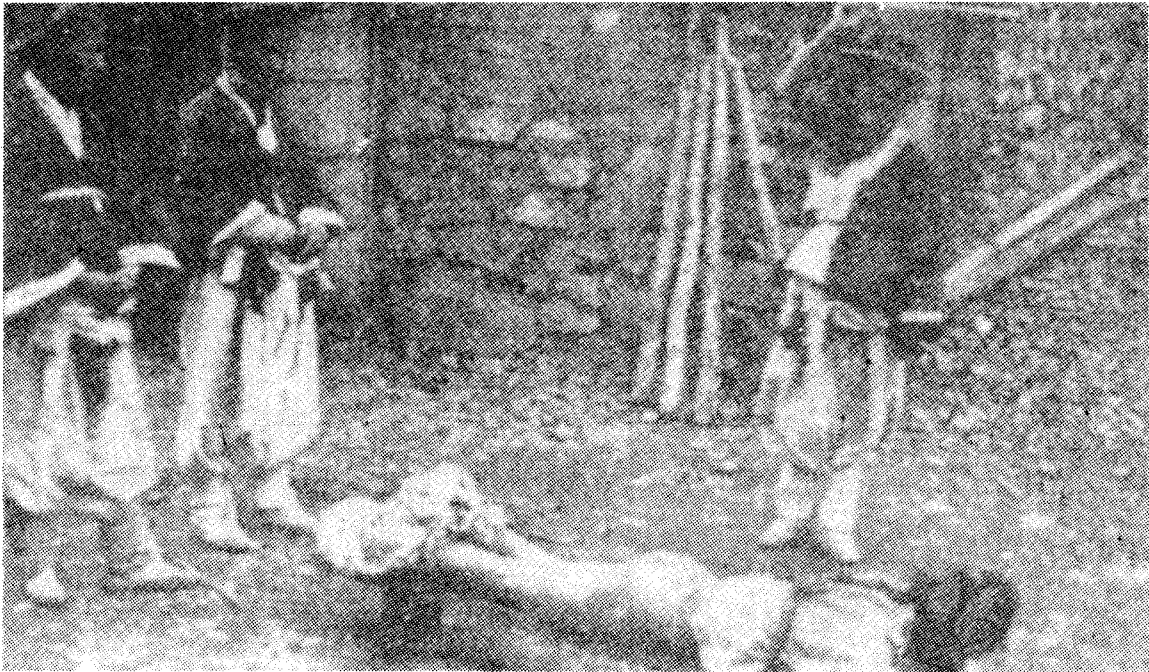
오종록

(수원대 강사)

유럽에서 역사학이 신학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근대 학문으로 독립할 당시 역사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정치사였다. 특히 19세기는 혁명으로 점철된 시기였기에 정치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정치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역사는 과거의 정책'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것이다. 한편 고증은 역사학이 근대 학문으로 자리잡는 기초로서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역사가들은 종교의 시녀 노릇을 하던 역사학이 튼튼히 학문적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 사실이 객관적 실재임을 입증하는 데에 전력을 쏟았다. 이에 따라 역사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정치사는 제도사나 사건사로서의 국가사나 왕조사로 연구, 서술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국가와 왕조를 움직이고 제도를 수립, 운영하는 지배층 중심의 역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연구연구분야의 다양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역사학은 무미건조한 고증을 극복하고 의미있는 해석을 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아울러 정치사 일변도의 역사 연구에서 탈피하여 사회경제사, 사상사, 문화사 등의 분야의 연구로 확산되고 피지배층도 역사의 주체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부분 부분으로서의 역사가 아닌 전체로서의 역사와 생활하고 구체적인 역사를 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태형정면. 조선시대에는 중국 명나라의 대명령을 반영한 형벌제도가 갖추어져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졌다 (사진: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비교적 연원이 짧은 한국의 역사 연구도 이러한 변화과정을 축약된 형태로나마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이에 바탕을 둔 지배 이데올로기의 시녀로서 역할을 하던 역사학이 실학의 시대에 이르러 차츰 학문적 독립을 이루어 가는 양상을 보인 바 있고, 서구 근대 학문의 영향 아래 고증 중심, 정치사 중심의 역사가 맹위를 떨치다가 사회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역사를 연구하는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이룬 것이다. 연구에 치중하여 대중이 볼 수 있는 역사 서술을 등한시하던 풍토도 차츰 개선되었으

며, 최근에는 한국사에서도 연구와 서술 두 측면에서 생활사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한국 사회 자체의 변화에 따른 요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80년대는 대중들에게 자신이 바로 역사라는 기본적 생활문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은 소재 쪽에서나 방법 쪽에서 역사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생활사를 준 시대상이었다. 그 자의식의 개입 뒤에 온 90년대는 일상생활과 문화가 더 중요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념에 대한 관심이 준 반면에 개인 및 사회의 인간다운 삶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다수가 삶의 질을

중요시하면서 그에 대한 가치 기준을 문화수준의 양상에서 찾게 되었음을 뜻한다. 대중은 문화상품에서 얻는 얻을 수 없는 삶의 안정과 행복이라는 기본적 생활문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은 소재 쪽에서나 방법 쪽에서 역사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생활사를 준 시대상이었다. 그 자의식의 개입 뒤에 온 90년대는 일상생활과 문화가 더 중요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념에 대한 관심이 준 반면에 개인 및 사회의 인간다운 삶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다수가 삶의 질을

생생한 삶의 역사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적 모순과

콜레를 해소해 나가는 데에 있다면, 그 핵심은 그 시대를 산 인간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데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재를 있게 한 과거의 모습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이 역사를 연구하는 근본이라고 볼 때, 생활사는 그 중요한 수단이 된다. 생활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낱알의 개인의 삶에까지도 결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현재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자연 환경을 비롯한 물질 문명과 각종 정신문화 등에서 장기간의 지속성을 갖는 역사의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해 내는 것이 곧 생활사이다. 따라서 생활사는 역사를 분야별로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사로서 이해하면서, 그것을 특정 시점의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이나 한 시기의 개인의 일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한국사 전체 규명엔 미흡

현재 생활사로서의 한국사의 성과는 개인의 생활을 결정짓는 역사상 전체를 규명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당시의 생활상을 부분적으로 그려내는 데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생활사 연구의 출발점에서 있음을 뜻한다. 역사상을 제대로 복원할 만한 자료의 부족, 연구 방법의 미숙성 등을 극복하고 생활사의 연구와 서술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한다.

세시봉

반성할 수 없는 반성

공광섭 편집장

저는 올해로 지천명의 나이인 50세가 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사랑스런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업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며칠전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4년도 4월 어느 지방에서입니다. 저와 같이 연구를 위해 지방으로 식물채집을 갔던 저의 제자, J모양이 제가 근무하는 곳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지방으로 식물채집을 하러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녀를 허벅지와 옆구리를 꼬집고 가슴을 만졌다는군요.

그녀는 또 제가 같은 호텔방에 투숙하기를 요구해 이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다더군요. 심지어는 제가 연구실에 있었던 다른 여자 대학원생에게도 비슷한 일을 했었다고 소문을 내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당시 차안에서 한 얘기는 미국의 독신자 클럽에 관한 것이었을 뿐이고 성적 대화나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녀에게 호텔방에 투숙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짐을 옮겨주러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직장에서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예전에도 제 친구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실이 있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급진전,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업무와 면담등을 당분간 금지하라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억울합니다. 저 말고도 국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정치계, 재계, 법조계, 교육계 등에 있는 저의 친구들의 얘기가 믿을만한 정보고요. 제가 단지 힘이 없고 명망만 높은 직업에 있다보니 사건이 확대되는 것일 뿐입니다.

솔직히 저의 지금 심정을 정리 하자면 무언가를 반성해야지,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반성해야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솔직하게 말해 아무것도 반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반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무언가를 반성할 때가 오겠지요. 그때가서 천천히 반성하자고 저는 반성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반성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반성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신청은 4월1일부터 4월18일까지 서문원에서 접수하거나 국민 023-01-636-4222강내회로 수강료를 입금하면 된다. 문화이론반, 문화분석글쓰기반은 각기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40명 정원에 수강료 15만원,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5명 정원에 수강료 15만원이다. 문의는 335-0462

미생물학회 춘계학술발표

'제37회 한국미생물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학교에서 열리게 된다.

각 연구소와 대학들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생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 평가하게 된다.

세부행사로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유준박사의 특별강연을 하며,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 미생물에 관한 심포지엄을, 그리고 도서관 로비에서는 포스터발표를 할 예정이다.

서평

삶을 관통하는 또하나의 역사



조선시대 생활사

한국고문서학회 역음

입 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라면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것 같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하기 싫은 군생활을 완강대까지 해야 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저

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군인들은 월급도 못받았고 심하면 자기가 사용할 복장과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때도 있었다니 작으나마 월급도 주고 무기도 주는 지금 군

대는 얼마나 좋아진 것인가.

한국 역사 연구회가 펴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민중의 삶과 가장 근접한 역사를 다룬다. 1권과 2권에 걸쳐 조선시대의 사회와 경제 문화와 정치 등을 총괄하는 이 책은 여러개의 작은 질문을 통해 고문서 속에 덮여 있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상공업을 천시했던 장물배이의 애환에서부터 신분과 담배대 길이가 어떻게 비례하는지, 여성이 천시받았던 조선시대에 이혼이 존재했는가 등의 의문과 이에 대한 응답, 심지어 궁궐의 뒷간문화까지를 면

면히 살펴다 보면 역사관 시대와 사회를 거시적으로 꿰뚫고 있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 고문서 학회에서 펴낸 조선시대 생활사는 좀 더 정형적이다. 고문서 학회에서 지은 책답게 "문서와 생활" "언어와 문자"라는 총론으로 인간 생활과 문서와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이 책은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 신분별 생활상화 제도, 경제 생활등을 총 5부로 나눠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전에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던 어촌사회에 대한 이해나 향리 중인들의 생활, 지역별 경제 생활 분석은 의의있는 시도로 판단된다.

(학술부)

사랑과 믿음의 동부그룹

늘 따뜻함이 있어 좋다!



동부증권 강남지점 박승진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기업 -

최고의 질을 갖춘 최고의 기업 -

이것이 동부그룹이 추구하는 21세기 자화상입니다.

최고의 혼을 담은 최고의 제품, 감동이 있는 고객서비스 등

동부그룹은 늘 한 발 앞서 고객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랑과 믿음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설, 제강, 화학 등의 기간산업에서 금융, 보험, 증권, 종합금융과

신소재,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3만여 동부 가족은 '최고의 질을 갖춘 최고기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강·화학·전자·신소재분야: 동부제강 동부한화화학 동부정제화학 동부정제화학
■건설·유통·에너지 분야: 동부건설 동부엔지니어링 동부고속
■금융·보험·정보통신 분야: 동부증권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증권 동부증권
동부주택금융 동부투자신탁은행 동부정보시스템 동부경제연구소



동부그룹